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통한 금융보험교육 정책 시사점*

Policy Implications for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through Cases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정 세 창** (Sechang Jung)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문제점
- III. 미국의 금융교육 사례
- IV. 영국의 금융교육 사례
- V. 호주의 금융교육 사례
- VI. 시사점 및 제언

〈국문초록〉

본 연구는 국내 금융 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제언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금융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자질 향상이 주요 요건이므로, 이러한 자질의 향상을 위한 모범 사례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미국, 영국, 호주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국가전략에 대한 조사 분석과 공적기구 및 비영리민영기구의 주요 사례에 관한 것이다. 사례조사 분석 결과 금융교육은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호주의 경험을 볼 때 미국과 같이 국가가 주도가 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금융교육협회의 의장은 미국처럼 금융위원장으로 승격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

* 이 논문은 대산신용호기념사업회에 의해 지원되었음.

** 홍익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E-mail: scjung@hongik.ac.kr

투고일: 2023.09.26. 심사시작일: 2023.10.07. 최종수정일: 2024.01.16. 게재확정일: 2024.01.26.

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해의 성과, 평가, 향후 추진계획을 문서화하는 연차보고서의 발간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리소스를 개발 제공하여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의무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다양한 언어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범용성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국문색인어 : 금융교육,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 범용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uggestions for systematic operation of domestic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through the experiences of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become a financially advanced country, improving the qualifications of consumers is a key requirement, so research is needed on best practices and operational measures to improve these qualifications. The main content of the study is a survey and analysis of national strategies for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in the US, the UK, and Australia, and major cases of public organizations and non-profit private organizations. As a result of the case study analysis, it is suggested that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should be state-led, long-term planned, integrated, mandatory, and transparent. Looking at Australia's experience, like the US, the country should take the lead and pursue it consistently. The chairman of the Korea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 should be promoted to the chairma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like in the US. Because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does not show results in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plan of more than 10 years and publish an annual report every year that documents the year's performance, evaluation, and future plans.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hould take the lead in developing and providing finance insurance education resources so that it is centered on consumers rather than suppliers. It needs to be made compulsory as in the US and the UK. Lastly, as in the case of the US, the versatility of providing financial education in various languages should be expanded.

Key Words : finance and insurance education, nation-led, long-term planning, integration, obligation, versatility

I. 서론

Covid-19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금융보험교육¹⁾은 다른 분야보다 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Covid-19 이전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져 왔던 금융교육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대면교육이 어려웠던 코로나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교육 계획이 실행되지 못했다. 다만 2007년부터 자율로 운영되어온 금융교육협회가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법정기구가 된 것은 금융교육에 대한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교육협회가 법정기구가 된 이후에도 한국의 금융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답보 상태에 있는 반면,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상당한 진전과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금융에 대한 교육이 국민소득 증진과 나아가 금융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금융선진국은 Covid-19 기간 중에도 금융교육에 대한 발전과 코로나 이후의 청사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금융교육은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특정 산업의 경쟁력은 수요와 공급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한국의 금융산업은 공급조건 중 양적인 성장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 성장률의 약 2배 수준으로 성장하여 왔다. 하지만 특정 산업의 경쟁력 조건 중 하나인 수요조건, 즉 금융이해력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현실이다. 보험 산업에서 불완전판매와 민원,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지속적으로 낮은 설계사 정착률, 연금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노후 빈곤 등 보험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도 청소년기 보험교육의 부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금융 분야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 전체를 의미하는데, 보험은 금융의 한 분야이므로 이후, 보험교육으로 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보험교육은 함축적으로 금융교육으로 표기함.

〈표 1〉 금융산업과 GDP 성장률 비교

(단위: 조, %)

구분	2000년	2022년	성장률
은행	836	4,417	5.28
증권사	35	608	17.37
생명보험사	117	938	8.02
손해보험사	29	372	12.83
합계	1,017	6,335	6.23
GDP	652	1,965	3.01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경제통계서비스(한국은행)

따라서 금융교육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목표, 실행 계획 수립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과 발전, 나아가 한국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절실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 비해 금융교육의 장기적 청사진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는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그 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다양한 금융교육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미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데 비해 본 연구는 거시적 차원에서 제도적 설계를 제시하고 있어 차별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으로 자율기구에서 법정기구가 된 금융교육협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금융교육이 선진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제 I 장 서론에 이어, 제 II 장에서는 한국의 금융교육 정책 현황을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제 III 장, 제 IV 장, 제 V 장에서는 각각 미국, 영국, 호주의 금융교육 정책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다. 국가별로 금융교육의 운영 체계가 다른데 각 장에서 국가별 주요 특징에 대해 요약하고, 다음으로 공적기구 및 비영리 민영기구의 주요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호주의 경우는 최근 금융교육의 체계 및 주무부처를 바꾸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중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VI 장에서는 이들 해외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금융교육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금융교육이 발전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내용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한국의 금융교육 현황 및 문제점

한국의 금융교육을 주관하는 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는 2007년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이후 금융교육에 대한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해왔다. 이후 매년 금융교육에 대한 발전내용이 논의 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가 된 2021년 이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금융교육협의회는 20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법정기구가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가 된 후 연도별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5월 첫 번째 회의(금융위원회, 2021a)에서는 금융교육협회 운영방안,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 금융교육강사 인증이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방안은 금융교육의 운영체제와 관련 된 것으로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와 금융교육강사 인증은 금융교육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금융교육콘텐츠 인증제는 교육의 내용이 현 금융환경에 적합한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지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심사기준으로 적정성, 정확성, 전달성, 공정성을 두어 교육 내용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금융교육강사 인증제는 다른 선진국에서도 금융교육에서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강사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강사요건으로 현재 금융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강사의 양적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2021년 12월 금융교육협회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2021b)은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금융교육 전달방식의 다양화와 학교교육 내 금융교육 강화이다. 2021년 12월 회의는 2022년 금융교육 계획을 의결한 것인데, 구체성 측면에서 일보 진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메타버스, 보드게임, 체험관 등 체험형 교육방식을 확대하여 금융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다른 선진국처럼 학교교육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교육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달성하려는 계획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의 경우(금융위원회, 2022)는 금융교육협의회 운용규정을 제정하여 금융교육실무협의체(working group)의 구성 및 운영근거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금융교육정책 자문과 연구수행 집행을 하는 전문가협의체와 연석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2022년은 금융교육 관련 기구 운영방안에 대해 2021년 회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구체화 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3년의 경우(금융위원회, 2023)는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방안이 논의되었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의 기존 콘텐츠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경제배움e), 한국은행 플랫폼(경제교육)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기간과 협의하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의 제작 및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자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교육콘텐츠의 대중화,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그 동안의 진행을 볼 때 금융교육에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조항 마련, 금융교육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할 강사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와 체험형 교육방식의 확대, 그리고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담당하게 하려는 노력 등의 진전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현재 국내 현실이다.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금융교육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교육협의회가 법정기구가 된 것은 진일보한 성과이나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상과 국가 교육정책 결정에서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아진다. 금융교육은 장기적 과제로 10년 이후를 내다보며 청사진을 가지고,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통합성 측면에서는 금융위원회(202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진행이 이루어지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국내 금융교육이 수요자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 편의로 이루어지다 보니 각 정부기구나 협회

및 단체별로 각자 작동하는 문제점으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관성 부족은 금융교육에서 의무성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특히, 지방의 경우 금융교육 강수 수가 늘 부족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금융교육의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일관성 부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국회내 금융교육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 APPG(2011)에서는 금융교육 콘텐츠 미흡 및 강사 수 부족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금융교육을 의무화시키면서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의무성과 관련하여 국내 교육과정의 금융 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2022 개정 교육과정 개편으로 2025년부터 신설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무관한 융합선택 과목으로 실제 금융교육 효과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Ⅲ. 미국의 금융교육 사례

1. 미국 금융교육의 주요 특징

금융교육에서 가장 발전된 미국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국가 주도하에 일관성 있게 금융교육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한국의 금융교육협의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금융교육위원회(FLEC: Financial Literacy Education Commission)는 재무부장관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24개의 정부부처²⁾가 멤버로 들어와 있다. 이는 금융교육에 대한 국가의

2) 위원회는 재무부, 금융소비자보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농림부, 국방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 및 도시개발부, 내무부, 노동부, 보훈부, 연방예금보험공사, 연방재난관리청, 연방주택금융청, 연방준비위원회, 연방무역위원회, 일반서비스 행정부, 신용협동조합청, 통화감독청, 인사청, 중소기업청, 사회보장청,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금융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영국, 호주와 달리 금융교육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은 금융교육의 주무기구가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고, 호주의 경우도 금융교육에 대한 전략 방향을 최근 바꾸었으며, 주무부처도 바뀌었다.

둘째, 미국 금융교육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속성에 있다. 매년마다 당해 연도 국가 전체 금융교육의 내용과 평가, 다음 연도 계획 제시 등 다른 국가와 달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교육이 시급한 국가의 현안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및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제약이 있기 마련이지만, 미국이 경우는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실제 미국의 금융교육은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민영기구를 통해 발전해 왔는데, 다양한 민영기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융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비영리민영기구인 점프스타트개인금융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국 각 주의 금융 및 경제교육 현황 파악은 CEE(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 국가금융전략에 대한 리뷰는 NEFE(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가 하면서 공사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미국의 주요 사례

미국의 금융교육은 금융교육위원회(FLEC)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교육위원회는 2003년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에 의해 발족되었다. 위원회의 비전은 미국의 모든 개인과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금융복지에 있으며, 이 비전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는 모든 미국인이 금융정보에 입각한 재무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책, 교육, 관행, 연구 및 조정 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운영은 재무부 소비자 정책실에서 관장하고 있다.

미국의 금융교육위원회는 우리의 금융교육협의회에 해당되는데, 의장은 미국

합쳐 24개 정부부처로 구성.

재무부장관, 부의장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국장이 맡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교육협의회의장인 점을 보면 우리의 경우 금융교육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낮다고 볼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은 최근 연방주택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이 추가 되면서 총 24개 정부부처가 멤버로 들어와 있다. 한국의 금융교육협의회의보다 많은 수의 정부부처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교육이 그만큼 국가대사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금융교육은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10년 7월 발표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개혁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³⁾에 의해 강화되었다. 도드-프랭크 법에 의해 연방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국회에 매년 금융교육연차보고서(financial literacy annual report)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3년 현재 2022년 보고서까지 총 10번의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금융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회의로 실시되는데 일반대중은 라이브 웹캐스트를 통해 회의를 볼 수 있다. 매년 약 3번의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2020년, 2021년에는 각 2번, 2022년에는 3월 8일, 7월 14일, 11월 17일, 2023년에는 4월 25일, 6월 20일, 7월 20일 개최되었다. 코로나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웹사이트인 MyMoney.gov⁴⁾를 만들어 금융교육 교육자료 및 금융교육 웹사이트 링크를 영어와 스페인어로 제공하고 있다. 동 사이트에서는 금융을 Earn(돈 벌기), Save & Invest(돈 늘리기), Protect(돈 지키기), Spend(돈 쓰기), Borrow(돈 빌리기)로 나누어(My Money Five) 교육자료 및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생애 주요 사건 예시로 9가지를 제시하고, 각 사건에 필요한 금융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9가

3)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한 볼커룰(Volcker Rule)이 포함되어 있어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https://www.mymoney.gov/Pages/default.aspx>

지 생애 사건은 아이의 출생, 고등교육, 결혼과 이혼, 집 구매, 예상치 못한 사건, 취업, 자영업, 퇴직,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다. 이 중 예상치 못한 사건을 예로 들면, 코로나로 인한 금융재무정보를 자가 소유자,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세제 관련 정보도 관련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여 왔다.

또 다른 금융교육 관련 공적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국은 금융교육을 통해 일반 국민 및 청소년의 금융이해도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건에서 코로나로 인한 금융재무정보도 실제로는 금융소비자보호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해당되는 기구이다.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등을 포함하여 외국어 총 7개를 제공하고 있어 범용성이 높다.

CFPB(2013)에 의하면 청소년의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5가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조기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고등학교까지 일관된 금융교육의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고등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통합과목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stand-alone) 과목으로 가르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둘째, 학교와 교사가 수업에서 개인재무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문항⁵⁾을 SAT(Scholastic Aptitude Test)와 같은 표준화된 테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셋째, 창의적인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제공하길 권고하고 있다. 넷째, 금융교육에서 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사 트레이닝에 지속적인 기회와 유인을 제공하길 권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금전관리(money management)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수단을 제공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CFPB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연차보고서의 발간이다. CFPB(2023) 연차보고서에서는 금융교육정책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5) 예를 들어 대출금액(X축)과 상환하여야 할 이자(Y축)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고르는 질문 문항.

소외 계층소비자와 지역사회, 학생, 군인 및 재향 군인, 그리고 고령 소비자를 포용하고 이들의 재무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금융교육의 실시이다. 둘째는 금융 웰빙(financial wellbeing)에 대한 연구,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5가지 원칙 그리고 금융교육방법(financial education tools)에 대한 공유이다. 이러한 점은 소외계층에게 금융교육이 더 필요로 하며, 금융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육내용보다는 이를 어떻게 전달하고 교육 당사자 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가지 원칙은 첫째, 교육생들의 특정 상황, 과제 및 목표에 부합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교육의 효과가 제고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서비스를 받을 개인과 가족을 파악(Know the individuals and families to be served)하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은 당장 이용할 수 있고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 습득 능력이 뛰어나므로 실행할 수 있고, 시의 적절한 정보(Provide actionable, relevant, and timely information)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재무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는 방법,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도움을 구하는 시기와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Improve key financial skills)하여야 한다. 넷째, 금융교육은 개인의 자질 향상과 사고방식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도록(Build on motivation) 하여야 한다. 다섯째,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통해 사람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을 실행하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Make it easy to make good decisions and follow through).

CFPB는 웹사이트 "Ask cfpb"⁶⁾를 통해 대중에게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대출, 자동차대출, 모기지, 사기 등 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질문과 응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비영리 민영기구의 금융교육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기구로 점프스타트개인금융(Jump\$tart Coalition for Personal Finance Literacy), 경제교육협의회(CE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전국금융교육재단(NEFE: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이 있다.

6)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

점프스타트개인금융교육기관은 포드자동차신용회사(Ford Motor Credit Co.)의 CEO이었던 William E. Odom이 1995년에 만든 비영리 민간금융교육 기관이다. 동 기관의 미션은 다양한 금융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연합기구로 미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애 재정적 성공을 위한 교육을 준비시키는데 있다. 비전은 재정적으로 유능한 청소년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점프스타트개인금융교육기관은 연방정부기관, 49개의 주정부, 대학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 등 150개 기관과 제휴하여 활동하고 있다. 또한 금융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를 소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인 클리어링하우스(Clearinghouse)를 1997년부터 무료 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한 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예로 무료로 제공되는 리스크와 보험과 관련된 자료에서 교재 전체 Power Point Presentation, 요약 Power Point Presentation, 연습문제, 연습문제 해답, 비디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혼자 학습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⁷⁾

CEE는 1949년에 경제교육협의회(Joint Council on Economic Education)로 발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비영리단체다. 기금은 주로 기여금으로 마련되는데, 2022년 기금 규모는 \$6,731,863⁸⁾이었다. CEE는 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 및 금융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도 하고 있다. CEE는 전국 200여개의 지부를 통해 매년 50,000명⁹⁾의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 교사가 다시 5백만 명의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러 국가에서 금융교육에서 문제점 중 하나인 교사 교육을 비영리 기구가 담당하여 극복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무료 온라인 교육은 EconEdLink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CEE에서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교육의 내용은 Earning Income(소득 창출), Buying Goods and Services(재화와 서비스 구매), Using Credit(신용), Saving(저축), Financial Investing(투자), Protecting and Insuring(보

7) <https://financialbeginnings.app.box.com/s/7wi9jrblt1rgeazda9x7ha30kz1t5zh8>

8) <https://www.councilforeconed.org/about/financials/>

9) <https://www.councilforeconed.org/impact/>

호와 보험) 여섯 가지이다.

CEE는 매 2년마다 미국 각 주의 금융 및 경제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CEE(2022)의 조사에 의하면, 금융과목 수강을 고등학교 졸업요건으로 하는 주가 1998년 1개 주, 2009년 13개 주, 2013년 17개, 2020년 21개, 2022년 23개 주로 꾸준히 늘었다. 경제과목을 필수로 하는 고등학교는 2018년 22개에서 2020년 25개로 늘었다.

NEFE는 1972년에 설립된 비영리대학인 College for Financial Planning에서 시작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다. NEFE는 고교생을 위한 금융교육(high school financial planning program)을 주로 수행하면서 금융교육 관련 보고서 출판, 금융교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교육 관련 보고서로는 'What We're Reading'을 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30일에는 미국의 2020년 금융교육 전략을 리뷰 하는 보고서인 NEFE(2021)을 발간하여 FLEC의 2020년 금융전략에 대한 기술 및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NEFE는 2020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인 5명 중 4명은 코로나로 재무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Harris Poll, 2020). NEFE는 금융교사 교육을 위해 중·고등학교의 금융교육 담당 교사들이 새로운 금융지식을 습득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금융교육교사 세미나 개최, 교사들의 강의를 위한 금융교육교사용 매뉴얼, 학생가이드 등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IV. 영국의 금융교육 사례

1. 영국 금융교육의 주요 특징

금융교육에서 선도주자인 영국의 주요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미국과 달리 정부주도의 금융교육이 아니라 전담기구(arm's-length public body)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담기구가 통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당시 금융감독청인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y)가 전담조직인 CFEB(Consumer Financial Education Body)를 만들었는데 이후 MAS(Money Advice Service)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다른 기구와 통합을 거쳐 2018년 10월 SFGB(Single Financial Guidance Body), 2019년 4월부터 MaPS(Money and Pension Service)로 변경되었다. 예산도 국가에서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금융산업의 분담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주무부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이며,¹⁰⁾ 금융능력 및 부채 조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부가 협력하고 있다.¹¹⁾

둘째, 영국은 FAS(2000)의 보고서에서 빈곤이 대물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유산이 아니라 금융지식의 결핍에 있다고 인정한 후 금융교육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금융교육이 정부주도로 운영되지 않고, 외부의 독립적 기구로 운영된다 보니, 조직의 명칭이 여러 번 바뀌게 되었고, 지원되는 예산도 산업의 재무 사정에 따라 감소되기도 하여 금융교육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보아진다.

셋째, 금융교육의 의무화를 금융감독청과 비영리 민영기구의 지속적인 역할과 국회의 금융교육위원회의 지지를 받아 달성한 점은 의의가 크다. 하지만 금융교육의 의무화 이후 금융교육의 보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 학교수업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시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Bank of England, 2022). 이는 아직 금융교육의 의무화를 달성하지 못한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넷째, 영국은 여러 교육 및 가이드 기구를 통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공적기구와 민영기구 모두 통합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교육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 또는 기구에서 분산되어 수행하는 것보다 통합된 기구에서 담당할 경우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 연금과 은퇴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10)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ingle-financial-guidance-body>

11) <https://maps.org.uk/en>

다섯째, 민영기구(Young Money)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금융교육 교재(textbook)와 파워포인트 제공 및 교사지침서(teachers guide)의 발간, 금융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영국의 주요 사례

금융교육 관련 영국의 공적기구는 정부가 만든 별도의 독립기구인 MaPS이다. 2010년 Financial Services Act에 의해 당시 금융감독청인 FSA가 금융교육 전담조직인 CFEB를 만들었는데, 2011년 CFEB가 MAS로 이름을 변경하였다(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2013).

2011년 이후부터 2019년 MaPS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2013)에 명시된 MAS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S의 서비스는 How to budget weekly or monthly spending(주 단위 예산과 월 단위 소비), Saving and Borrowing(저축과 대출), Protecting and Insuring the Individual and the Family(개인과 가족의 보호와 보험), Retirement Planning(은퇴설계), Understanding Tax and Welfare Benefits Better(세제 이해와 복리증진), Translating Technical Financial Language into Something that People Understand "Jargon Busting"(알기 쉬운 금융 용어 제공) 여섯 가지이다.

영국은 MAS에 별도의 예산을 할당하였는데, 주로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가 부담하였다. MAS의 예산은 2011년 32백만 파운드¹²⁾이었는데, 2013년 81.1백만 파운드¹³⁾로 2년 사이에 2배 이상 증액을 하였다. 하지만 2019년은 약 62.5백만 파운드로 감소하였다. MAS 설립 초기에는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연금을 포함한 MaPS로 통합된 이후에는 사용 경비가 증가하고 있다.

12) 금융감독원(2010)

13)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2013)

〈표 2〉 MAS와 MaPS의 지원 예산과 운영비용

(단위: 백만 파운드)

연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2022
금액	32.0	81.1	80.6	77.4	62.6	107.1	139.4	150.4

주: 2011년부터 2019년까지는 FCA가 지원한 MAS 예산, 2020년부터는 MaPS가 사
 용한 인건비 등 운영경비
 자료: 금융감독원(2010)과 MAS와 MaPS 각 연도 연차보고서

MAS는 연금관련 공적 교육기구인 TPAS(The Pension Advisory Service)와 PW(Pension Wise)와 함께 Financial Guidance and Claims Act 2018에 의해 통합 기구인 SFGB(Single Financial Guidance Body)로 통합되었다.¹⁴⁾ SFGB는 2019년 4월 8일 기구 명칭을 기구의 기능을 쉽게 알 수 있는 MaPS(Money and Pension Service)로 바꾸었다.

MaPS는 이사회 산하 6개위 위원회를 두고 있다. 감사 및 리스크 위원회(Audit Risk & Assurance Subcommittee), 재무 및 투자 위원회(Finance & Investment Subcommittee), 보수위원회(Remuneration and People Subcommittee), 후보추천위원회(Nominations Subcommittee), 연금 대쉬보드 위원회(Pensions Dashboard Subcommittee),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담당 위원회(Devolved Administration Subcommittee)로 구성되어 있다.

MaPS는 장기적이고도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 내 운영담당 파트가 필요하여 이렇게 6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사회와 위원회의 의장과 회장 및 임원은 이사회 의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경비는 홈페이지에 임원별로 공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수위원회의 의장인 Moray McDonald은 2020년 1월 27일 기차/전철 비용으로 41파운드, 2020년 1월 28일 북아일랜드 출장으로 비행기 229.31파운드, 택시 32파운드, 숙박비 80파운드를 지불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다.¹⁵⁾

MaPS(2020)는 2020년 야심차게 향후 10년간 금융 웰빙을 위한 전략(The UK Strategy for Financial Wellbeing)을 발표하게 되는데, 목표 설정을 위해

14) MAS(2019),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9

15) <https://maps.org.uk/our-board/adult-advisory-group-to-the-board/>

영국 전역 1,000명 이상의 이해 당사자로부터 청취 단계를 거쳐 다음 5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200만 명 이상(480만 명에서 추가적으로 200만 명 교육하여 680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실시, 둘째, 근로자 200만 명 이상이 정기적으로 저축하기, 셋째, 음식과 청구서 대금을 신용으로 하는 사람을 200만 명 이하로 줄이기, 넷째, 부채관리를 위한 상담을 200만 명 이상 하기, 다섯째, 노후의 삶을 위해 미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인지하기이다. MAS에 이어 MaPS는 매년 3월 31일자로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Annual Report and Accounts)를 발간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을 주도하는 민간부문의 대표적 단체는 PFEG(Personal Finance Education Group)이었다. 현재는 PFEG가 Young Enterprise¹⁶⁾ & Young Money에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PFEG는 1996년 금융교육을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기구로 소비자단체,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였다.

Pfeg 활동의 주요 성과를 보면 영국에서 금융교육이 의무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Pfeg는 금융교육 관련 당사자들과 협업하면서 정부, 교육 담당자, 금융회사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국의 금융당국과 Pfeg는 꾸준히 금융과목이 정규 과정에 포함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였다. Pfeg는 1996년 설립 이후 꾸준히 금융교육의 의무화를 진행시켜, 마침내 2014년 9월부터 전국 학교의 반 정도가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영국이 이렇게 금융교육을 학교 커리큘럼에 의무화를 하게 된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2004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개인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여 361명 중 1명이 되었다. 이는 과거 25년 동안 평균적으로 1,656명 중 1명인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1년 118,000명 이상의 탄원이 이루어졌고, 국회의 금융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파산의 원인으로 금융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APPG¹⁷⁾(2011)를 발간하게 된다. 동 보고서에서는 교과목의 과다,

16) 1962년 설립된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육자선단체.

17) 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Financial Education for Young People)으로 영

금융교육을 가르칠 선생님의 부재, 강의안의 부족(lack of resources)의 문제점이 있지만, 금융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 금융교육의 의무화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공적기구와 비영리민영 기구의 협업, 국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교육의 의무화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금융교육의 의무화 이후에도 산재한 과제가 많았다. 약 2년 뒤 APPG(2016),¹⁸⁾ Money Charity¹⁹⁾(2016)²⁰⁾에서 의무화가 된 후에도 금융교육의 실질적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APPG(2016)에서는 의무화된 이후에도 금융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평가했다. Money Charity(2016)에서도 실제 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의 약 2/3 정도는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금융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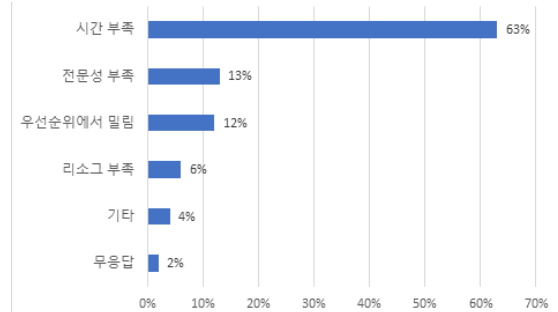
APPG(2021)과 Financial Times(2023)에서도 의무화 이후에도 금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APPG(2021)에서는 심지어 의무화가 된 것도 모르는 교사가 많으며, 2021년 8,911,887 명의 학생 중 수백만 명이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Bank of England(2022)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2022년 2월 19일 교사 6,694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장애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 부족(63%)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수업 프로그램에서 금융교육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우리의 금융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국 국회 내 금융교육위원회를 말함.

18) APPG(2016),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Two Years On-Job Done?

19) Money Charity는 1994년 만들어진 대출 상환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민영기구로 원래 명칭은 Credit Advice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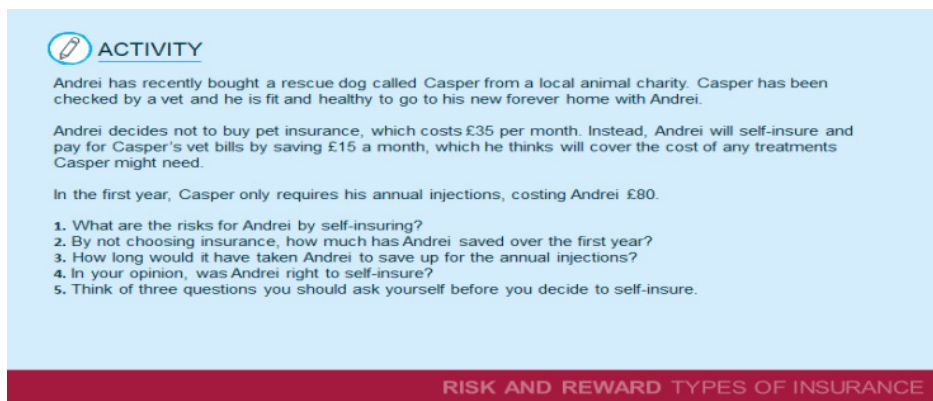
20) Money Charity(2016),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how to fix two lost years?



자료: Bank of England(2022)

〈그림 1〉 금융교육 프로그램 진행의 장애요인

Young Enterprise가 발간하고 있는 금융 교재의 내용은 대부분 실제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는 펫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무보험으로 있는 것 간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림 3〉은 보험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 Emil과 Aliyah의 경제 및 생활 여건을 제시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보험을 추천해보라고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및 사례를 통해 서로 토론하고 설명을 들으면서 실생활에서 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에 대한 가이드는 교사지침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교사가 가르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 Young Enterprise(2021), Your Money Matters, Ch5 Risk & Reward.
 (<https://www.young-enterprise.org.uk/your-money-matters-england/ppts>)

〈그림 2〉 무보험과 보험가입 의사결정

CASE STUDY

Emil loves gadgets and always likes to have the latest technology for his phone and flat. He queued up to get the latest smartphone and uses it all the time for photos, music streaming, maintaining his social media and staying in touch with his friends and family. He has the very best 4K UHD TV and the lighting and heating in his flat is voice controlled. He has fitted security cameras that can send an image to his smartphone if an intruder is detected. He cannot afford to buy and run a car but, as he lives in a town, he uses his e-bike a lot and now wants to upgrade it. He is considering taking out a loan to pay for the latest model.

Aliyah loves travelling and participating in adventure sports like mountain biking and white-water rafting. Originally from Sweden, she is also an accomplished skier and snowboarder. She rents a flat, but it is often empty whilst she travels. When she is travelling in the UK, Aliyah takes Rufus, her beloved 12-year-old collie, but when she goes abroad she pays friends to look after him. To get around in the UK, Aliyah has a 20-year-old campervan that she calls Hector.

Can you advise Emil and Aliyah on insurance? Recommend two types of insurance that you feel are important to Emil and two for Aliyah.

RISK AND REWARD TYPES OF INSURANCE

자료: Young Enterprise(2021), Your Money Matters, Ch5 Risk & Reward.
(<https://www.young-enterprise.org.uk/your-money-matters-england/ppts>)

〈그림 3〉 영국 교재에서 보험사례(보험가입과 종류)

V. 호주의 금융교육 사례

1. 호주 금융교육의 주요 특징

호주는 금융교육에 대한 체계를 변화시킨 국가이다. 금융 웰빙을 목표로 2014년 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 증진에서 2018년 금융능력(financial capability) 향상으로 국가전략을 바꾸었다. 관장부서는 독립기구(Independent Government Agency)인 ASIC에서 정부 부처인 재무부(Treasury)로 바뀌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교육과 국가주도로 금융교육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경우 미국, 영국과 달리 금융교육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행하지 못했는데, 이는 금융교육의 지속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교육전략을 변경시켰다고 보아진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금융교육 리소스와 관련하여 ASIC에서 MoneySmart

(<https://moneysmart.gov.au/>)로 통합적이고 광범위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교재와 동영상뿐만 아니라 교사지침서까지 제공하고 있어 동 사이트를 방문하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금융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영상으로 금융관련 내용을 국민 모두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동영상을 이용할 수 없는데, 기존의 Fuse Learning에서 짧은 동영상, 검색과 탐색이 더 용이한 Arc Learning으로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기(2023년 4분기 완성) 때문이다.

2. 호주의 주요 사례

금융교육을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ASIC에서 재무부로 변경되었으며, 금융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22). 새로운 전략은 이전 ASIC 주도하에서 보다 금융교육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재무부는 2020년과 2021년 금융능력 커뮤니티(financial capability community)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①금융능력에 포함/포함되지 않는 영역 규정 및 금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②금융교육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활동 및 개입의 기본원칙 정립과 이를 위한 금융능력 커뮤니티 조직의 정립 ③금융능력 갭을 줄이기 위한 금융능력전략의 모니터링 및 평가로 격년별로 국가 금융능력 서베이 실시 ④마지막으로 젊은층, 여성, 퇴직 중이거나 퇴직에 가까운 사람,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섬 주민에 대한 금융교육전략 실행 방법 제시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건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재무 의사결정으로 내리는 긍정적인 금융행동(positive financial behaviors)에 필요한 금융 지식(financial knowledge), 기술(financial skills), 태도(financial attitudes) 및 자신감(financial confidence)의 조합을 의미한다. 금융능력이 중요한 이유로는 행복한 삶과 스트레스와 관련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호주의 금융능력 서베이(ANZ, 2021) 결과 금융능력이 갖추어진 경우(83%)가 그렇지 못한 경우(64%)보다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며, 금융능력이 갖추어진 경우(29%)가 그렇지

지 못한 경우(48%)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무부로 주무부처가 바뀐 이후 아직 연차보고서나 활동에 대한 내용이 발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ASIC에서 제공한 MoneySmart에서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금융교육에 대한 리소스는 MoneySmart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민영기구의 금융교육은 미국, 영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보험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기구로는 호주의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Limited와 손해보험 프로그램으로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이 있다.

호주의 Superannuation은 퇴직연금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아태지역 최고 연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0년 평균 수익률 8%, 소득대체율 31%(한국의 퇴직 연금은 10년 평균수익률 2%, 소득대체율 15%)의 기록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²¹⁾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요율이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소득대체율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https://www.superguru.com.au/about-super>

<그림 4> 호주 퇴직연금 보험요율(Superannuation Guarantee rate) 추이

이러한 성공의 대표적 이유 중 하나로 퇴직연금에 대한 교육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Superannuation 홈페이지²²⁾에서는 퇴직연금에 대한 다양한 주제(예를 들어 Super basics - saving for your future, Understanding contributions and recent legislative changes, Retirement ready - what are

21) 송홍선(2023), 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금융시장 돋보기], 이데일리, 2023.3.20.

22) <https://www.australiansuper.com/campaigns/supertalks>

you super options? 등)에 대해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 호주에서는 젊은 계층의 경우도 은행잔고보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더 많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19년 20~24살의 경우 은행 잔고는 4,000 호주 달러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7,500 호주 달러이고, 25~29살의 경우도 은행 잔고는 10,000 호주 달러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은 23,500 호주 달러로 훨씬 많다.²³⁾

VI. 시사점 및 제언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교육의 국가 목표는 유사하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금융교육 체계, 접근 방법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달리 영국과 호주는 시행착오로 주무기관이 변경되었고, 호주는 접근 방법도 변화시키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독립전담기구로 운영된 영국과 호주보다는 금융교육의 모범사례는 정부주도로 일관성 있게 운영된 미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유사하게 2007년부터 독립기구가 아니라 정부주도의 금융교육협의회가 운영되면서 그 동안 계획을 세우고 실행, 점검 등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민영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근거조항 마련으로 향후 금융교육이 진일보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금융교육의 소스 측면에서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례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언을 사례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금융교육은 국가주도성, 장기계획성, 통합성, 의무성, 범용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한다. 호주의 경험을 볼 때 미국과 같이 국가가 주도가 되어 일관성 있게

23) <https://www.superguru.com.au/about-super/youngpeople>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교육협회의 의장은,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 금융위원회 부원장에서 위원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에 투입되는 예산, 관련부처와의 협업, 대국회 대상으로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 제시 등의 사안에 대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의 승격은 필요하다. 일례로 2023년 금융교육협회의 주요 내용인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와 기획재정부의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한국은행 플랫폼과 원활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금융교육협회의 의장은 금융위원장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한 해의 성과, 평가, 향후 추진계획을 문서화하는 연차보고서도 발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도드-프랭크 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국이 매년 국회에 연차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통합성과 관련하여서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금융교육 리소스를 개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23년 1차 금융교육협의회(금융위원회, 2023)에서 금융교육플랫폼(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중점으로 진행된 것은 통합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아진다. 또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리소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호주의 MoneySmart를 참조하고, 영국과 호주처럼, 교사지침서도 함께 발간하면서, 금융수요자의 실제 생활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재가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점진적으로 학교교육에서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교육협의회인 CEE에서 매 2년마다 파악하여 공시하고 있다. 정부, 국회, 민간이 협업하여 학교에서 의무화를 이룬 영국의 사례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학교에서 금융교육의 의무화는 사기와 불완전판매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며,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금융교육의 제공 언어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 금융교육위원회의 금융교육 웹사이트에서는 영어와 함께 스페인어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의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어, 중국어 등을 포함하여 외국

어 총 7개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에서는 현재 한국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것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로 국가별 사례의 수준 및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각 국가별로 학교 교육과 일반인 교육 사례를 모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별로 균형 있는 사례를 구하는 한계도 있어 이러한 점은 차후 연구를 통해 개선시키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금융위원회, 「금소법과 함께 체계적·효율적인 금융교육이 건전하고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이끌어갑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05.26. (2021a).
- 금융위원회, 「2022 금융교육 강화방안」 의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12.21 (2021b).
- 금융위원회,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 06.21.
-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플랫폼 확대개편 추진」,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06.30.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국은행, 한국은행 경제통계서비스.
- 금융감독원, 해외 금융교육 선진사례 및 추진현황 조사 결과. 해외출장보고서. 소비자서비스국 금융교육기획팀, 2010.
- 송홍선, 호주는 어떻게 퇴직연금 강국이 됐나[금융시장 돋보기], 이데일리, 2023. 03.20.
- ANZ, FINANCIAL WELLBEING, A Survey of Adults in Australia, 2021.
- APPG, Financial Education & the Curriculum, 2011.
- APPG,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Two Years On-Job Done? 2016.
- APPG, Inquiry on Primary School-aged Financial Education, 2021.
- Australian Government, National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Feb, 2022.
- Bank of England, Financial education in a digital world, Quarterly Bulletin 2022 Q1, 2022.
- CEE, Survey of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2022.
- CFPB, Transforming the Financial Lives of a Generation of Young Americans: Policy Recommendations for Advancing K·12 Financial Education. CFPB Office of Financial Education Policy White Paper, 2013.
- CFPB, Financial Literacy Annual Report, March 2023.
- Financial Times, Britain's schools fail legal requirement to teach money matters, Feb. 22 2023.
- FAS, A Cycle of Disadvantage?: Financial Exclusion in Childhood. Consumer

- Research 4, 2000.
- Harris Poll, Survey Update: Over 4 in 5 Americans Still Experiencing COVID Related Financial Stress. 2020.
- House of Commons Treasury Committee, Money Advice Service. Seventh Report of Session 2013-2014. MAS, 2013.
- MaP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20. 2020.
- MaP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21. 2021.
- MaP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22. 2022.
- MaPS, The UK Strategy for Financial Wellbeing, 2020.
- MA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3. 2013.
- MA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5. 2015.
- MA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7. 2017.
- MAS, Annual Report and Accounts for the Year Ending 31 March 2019. 2019.
- Money Charity,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s: How to Fix Two Lost Years? 2016.
- NEFE, What We're Reading: A Review of the U.S. National Strategy for Financial Literacy 2020. August 30. 2021.
- Young Enterprise, Your Money Matters, Ch5 Risk & Reward, 2021.
- <https://financialbeginnings.app.box.com/s/7wi9jrblt1rgeazda9x7ha30kz1t5zh8>
(미국 클리어링하우스 리스크와 보험 자료).
- <https://maps.org.uk/en>(영국 MaPS 와 재무부 관계).
- <https://maps.org.uk/our-board/adult-advisory-group-to-the-board/> (MaPS 웹사이트).
- <https://moneysmart.gov.au/>(호주 금융교육 MoneySmart 웹사이트).
- <https://www.australiansuper.com/campaigns/supertalks>(호주 superannuation 동영상 교육).
- <https://www.councilforeconed.org/about/financials/>(미국 CEE 재정).
- <https://www.councilforeconed.org/impact/>(미국 CEE 업적).
-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미국 CFPB 금융교육 서비스 웹사이트).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ingle-financial-guidance-body>

(영국 MaPS 주무부처).

<https://www.mymoney.gov/Pages/default.aspx>(미국 금융교육위원회는 금융교육 웹사이트).

<https://www.superguru.com.au/about-super>(호주 superannuation 보험료 등 안내).

<https://www.superguru.com.au/about-super/youngpeople>(호주 젊은층의 super-annuation 기금).